

함글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94

2018.5.20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_ 갈라디아서 6:10

오늘의 주요기사

- 3 교회소식
- 4-5 무지개 축제 화보
- 6 사역소식
- 7 목회칼럼 / 사역소식
- 8 아가나들이 / 공동체 소식

교회 일정

- 5/20(주일) 성령강림주일 / 청년주일
- 5/27(주일) 삼위일체주일
- 6/1(금) 금요기도회
- 6/10(주일) 정기당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글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아버지 주일, 가슴을 울린 설교 말씀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바로 그 날

오늘은 아버지주일입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매 주일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힘들어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전하는 본문의 말씀대로 제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교우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아프고 찢리는 데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 주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일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다, 효도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제 제 삶이 효도하는 삶이 못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오늘도 효도하는 아들이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사십니까? 오늘처럼 급격한 윤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오늘 이 시대 못지않은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로마의 문화가 기존의 전통윤리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통윤리관에 상당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찾아, 자유를 찾아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팽배해져 가는 물질문화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훼손되고 점차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였지만, 그가 지난날 3년여를 정성을 쏟아 양육하고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을 전달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께 대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울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너희 부모에게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주 안에서”라는 의미를 우리는 가슴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부모에게는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자는 반드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고 올라가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때 이삭의 나이는 이미 20대 전후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나이도 120살 전후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창 22장 9절을 보면 이삭이 결박당해서 제단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더구나 7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이삭은 자신이 지금 제물로 바쳐질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7~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정말 제물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음이 실제 상황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2면에 계속

> 1면에서

궁금한 것은 진짜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잡아서 칼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친다는 그 사실을 이삭이 알게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순순히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해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력으로 아브라함이 어찌 이삭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보다 더한 충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더 놀랄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 그 현장에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무엇에 순종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에 따라 아버지가 자신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는 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박당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편입니까? 불순종하는 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주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이 땅에서 효함으로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심는 대로 우리 또한 자식에게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려고 어머니가 주방에 나갔더니 아들이 식탁 위에 메모를 한 장 적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번 주 엄마 심부름 세 번 한 것 삼천 원, 아빠 안마해 드린 것 삼천 원, 쓰레기 내다 버린 것 사천 원, 아빠 구두 닦아드린 것 오천 원, 함께 일만 오천 원”.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메모지 밑에 다음과 같이 답장을 쓰고 아들이 청구한 일만 오천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너를 위해 9개월 동안 뱃속에 데리고 다닌 것 무료,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데 들어간 돈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것 무료, 이 밖에 너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주기도 전부 무료”.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메모지 위에 있는 일만 오천원을 얼른 집어 들다가 엄마가 적어 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아들은 그 글을 읽고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또 글을 써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 정말 고마워요. 돈 잘 쓸게요.” 아낌없이 베풀고 또 베풀어도 자식에게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나인 나 된 것은 바로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부모님의 사랑에 최선을 경주해 보답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모시고, 많은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를 근심 걱정케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풍요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에게 회한이 덜합니다.

저는 어머님을 먼저 떠나보낸 후 어머님께 효도하지 못한 회한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날 부목사로 주님의교회를 섬기며 5년 9개월을 보내었을 때입니다. 형제교회인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떠나신 위기 상황을 맞아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십사는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난지시 제가 왔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습니다. 당시 저는 안식년 포함해서 3년간의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인지라 청빙 건에 대해선 아예 마음조차도 두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사시던 제 어머님이 자궁암이 재발하셔서 길어야 채 1년을 살지 못하신다는 진단을 받은 터인지라, 미국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이 전화를 주셔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비야, 사람이 원하는 곳 말고,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어머님이 계시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교회가 깨어질 상황에 있는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로 부임했습니다. 그런 후 그다음 해 1월 정기휴가 때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어머님은 그때까지 생존해 계셨지만, 몸 상태는 아주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을 함께 있다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려는데 제 어머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비야, 가야 하나?”, “안 가면 안 되나” 아들이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년 전에 제게 미국으로 오라고 하셨어야지 이제 사역지로 돌아가야 하는 아들을 “애비야 가야 하나?” 하고 말씀하시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조금만 더 함께 했으면, 조금만 더 아들과 함께 있었으면 하는 어머니의 눈길을 아직도 지울 수 없습니다. 더욱 더 회한이 남는 것은 저는 제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적이 별로 기억에 없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에도 기뻐하셨던 어머님이셨는데, 좀 더 기쁘시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제게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저는 어머니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가슴이 그리움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셔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효도하고 싶어도 효를 받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도할 기회와 시간을 주신 그 복중의 복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행이 따를 때,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주일로 지키는 이날은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다짐하고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김화수 목사

가정의 달 특집

주님의교회 가정사역 현황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교회 가정사역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인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실은 핵가족화, 나아가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 가정이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결혼 및 출산률 저하와 일인 가구의 증가, 높은 이혼률과 결손가정의 양산, 노령 인구의 증가와 청년 실업 문제,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이 맞물린 사회적 변화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가정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날 주님의교회 가정사역팀이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외적인 요인으로 가정사역팀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지금은 양육분과위원회 일개 부서로 가정사역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사역부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아버지학교와 결혼예비학교입니다.

아버지학교 사역은 강남지부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매년 초 5주에 걸쳐서 아버지들을 깨우는 사역을 10년 가까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교회 성도들의 가정회복 뿐 아니라 교회 밖 믿지 않는 아버지들의 삶도 도전받고 변화되어 풍성한 은혜와 열매들을 맺어왔습니다. 지난 강남 57기 아버지학교에는 교회 내 여러 남성 성도들이 스태프와 조장으로 함께 섬겼으며, 참여한 교육생 중에서도 이 기회를 통하여 참된 아버지로 거듭나기로 다

짐하는 성도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수료한 형제들은 후속모임을 가지며 또 다른 기수의 아버지학교를 섬기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결혼예비학교는 이번에 18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1년에 봄과 가을 2회에 걸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결혼예비학교는 총 3주에 걸쳐서 6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훌륭한 강사진 구성과 쌍인 사역 노하우로 규모는 작지만 내실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들과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준비된 결혼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경적 가정 이해와 공통점과 차이점, 의사소통훈련, 재정훈련, 부부의 성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강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예비학교를 수료한 신혼 커플들

이 젊은이교구인 8교구로 연계되어 교회 안에서 모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대적 요구를 생각할 때 주님의교회 안에서 또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가정사역의 영역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필요들을 제대로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가정사역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가정사역 전문교역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교회 가정사역은 본 궤도에 올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준 목사

가정의 달 특집

2018 무지개잔치

2018년 무지개잔치가 지난 5월 5일 정신학원 교정에서 어린이 약 1,000명, 성인 약 1,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다. 무지개 잔치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30)는 말씀에 따라,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매년 어린이날을 전후로 시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행사이다. 이날은 교회 주변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참여하여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다윗과 함께 떠나는 하나님 사랑 이야기”로, 주님의 품에서 보내는 광야의 하루를 모델로 구성되었다. 다윗의 삶을 재조명해보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놀이와 볼거리, 먹거리를 구성하여, 이 하루가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사랑을 오감을 통해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획했다.

이날 행사는 5인승 자전거를 타고 다윗의 생애를 상징하는 세트를 배경으



로 게임하는 이야기터, 트렘블린, 바이킹, 미니기차 등을 타면서 다윗의 모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놀이터, 페이스페인팅, 연 날리기, 나눔장터 등으로 구성되어 다윗의 시를 모티브로 한 사랑터, 카레라이스, 떡라면, 어묵, 순대, 파인애플바, 솜사탕, 슬러쉬, 핫도그 등 다채로운 간식이 제공되었던 먹거리터, 뮤지컬 콘서트와 가족운동회, 만화영화 등으로 구성된 공연터로 이루어졌다.

이날의 행사를 위해 기획팀, 준비팀, 본부팀, 봉사팀, 행사팀 등 목회자와 성도들로 구성된 봉사자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행사를 빛냈다. 특히 올해

는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편지와 SNS를 적극 활용했으며, 인근 아주, 대현, 잠전, 잠일, 잠신, 버들, 삼전, 송전, 신천 초등학교에 행사를 알렸는데, 결과적으로 외부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하여 명실공히 지역 사회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주님의교회와 관련이 있는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락본동 어린이집, 하남외국인비전센터, J주님의교회 등 외부 기관들에서도 함께했으며 특히 안산고려인마을의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프닝은 인기 뮤지컬팀인 바이블루트 히즈쇼의 복음의 내용을 담

은 생동감 넘치는 뮤지컬로 시작했는데,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첫 시간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뮤지컬, 달고나, 슈링클스, 오륜자전거, 버스킹, 실내 영화관, 미니 콘서트, 블랙라이트 등 예년에 비해 보다 큰 규모로 새롭고 다채로운 놀이 행사들이 기획되어 어린이들의 호응을 받았다.

공연터인 버스킹 코너에서는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노래와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비에서 펼쳐진 미니 콘서트도 클래식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하여 교역자들이 손수 준비한 블랙라이트인 〈물고기 팔라〉도 성황리에 공연됨으로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었다. 먹거리터도 여전도회가 참여하고 푸드트럭까지 동원되어 예년보다 많이 풍성해졌다는 평을 받았으며, 추억의 간식인 달고나가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화보 4~5면

가정의 달 특집

화보로 보는 2018 무지개잔치



제사장이
되어 본 아이들



인기를 독차지
미니



‘점점크게’
솜사탕



홀라후프 대회



내가 이 땅의
바이킹이다



빨강고
커다란 공이
나에게로



내가 꽃보다
예뻐요!



내 손에 그림을,
내 손으로 그림을!



야기터의 시작,
족이 함께 타는
5인승 자전거



교회 소식

어버이주일, 다양한 행사



5월6일은 어버이 주일에배로 드러졌다.각 예배마다 특송으로 어버이날 축하를 하고 청년부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을 일일이 정성스레 달아드렸다.70세가 지난 어르신들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고급우산을 한 가정당 하나씩 기념품으로 드렸으며 그동안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을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함줄함줄**

사역 소식

우리들학교 점심 나눔

우리들학교는 탈북 및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다. 우리들학교는 한국어 교육, 초중고 검정고시 및 대입 준비과정이 있다. 우리들학교는 현재 약 50명의 학생들을 30여 명의 자원봉사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다. 주님의교회 교인들도 여러 분이 교사로서 참여하고 있다.

우리들학교 학생들은 북한 출신도 있고,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여성의 자녀들도 있지만 중국 출신 학생이 더 많다. 우리들학교는 비인가학교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들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인가학교는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의 나이가 만 24세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국 출신의 학생들의 나이는 10대 중반부터 20세 전후이지만, 북한 출신의 학생들의 나이가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이다. 만약 우리들학교가 인가를 받으면 나이든 탈북 청년들이 공부할 학교는 없어진다.

주님의교회는 우리들학교에 2년 전부터 약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월 1회 점심봉사를 시작하였고, 올해는 매월 두 번 1, 3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다. 수업도 하는

신임 목회자 인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의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비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고,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고,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다음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황바울 목사



형편이지만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병직 안수집사

우리들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일파리와 정싹봉사와 우리들학교를 한 줄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우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짧은 미소로 환영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표정들을 때마 다 늘 기뻐합니다. 저희는 작게나마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식사한 번 준비하고 있어서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용도 마음 도 건강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학교에서 꿈을 잘 키워서 한국에서 멋진 사람되길 잘 게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주님의 교회 정싹봉사활동

~매년 여백 주님의 교회 한달에 한번 두 번씩 성일파리 영락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함께 감사 편지말까 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亲爱的各位主的教会的圣徒们你们好感谢你们一直以来为我们学校做奉献。也感谢主让我们有缘在这个学校里相遇。感谢你们每一次都为我们精心的准备着丰富的饭菜。还有为我们准备蛋糕庆祝生日。那个时候真的十分开心。快乐。谢谢你们无私和奉献地为我们所做的一切。也感谢主的恩典。我也会坚定自己的信仰。做一名成功的基督徒。也能像各位一样做一个能为他人奉献自己力量的一个人。也祝福各位幸福开心快乐。我也会为此祈祷的。啊们!

우리들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일파리와 정싹봉사와 우리들학교를 한 줄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우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짧은 미소로 환영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표정들을 때마 다 늘 기뻐합니다. 저희는 작게나마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식사한 번 준비하고 있어서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용도 마음 도 건강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학교에서 꿈을 잘 키워서 한국에서 멋진 사람되길 잘 게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주님의 교회 정싹봉사활동

~매년 여백 주님의 교회 한달에 한번 두 번씩 성일파리 영락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함께 감사 편지말까 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학교에 다니는 (정수진) 학생입니다.

매달마다 우리들학교에 오셔서 성일파리와 권애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셔서 정말 수고하시고 감사했어요. 저는 집에서 지내는 성도보다 학교에서 지내는 성도가 더 재미있어요. 집에서 가족들의 권유에 기쁨을 있지만 학교에서 '주님의 교회' 친구들과 우리들학교 권애가 성원을 축하해주는것이 더 더욱 기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목 수고나 모두 끝내고 나면 성도님들이 미리 준비한 음식이 유쾌하게 배려되지요. ~음식이 맛있어서 우리는 항상 배부르게 먹고 또 복부를 하지요. 저도 기도해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서요.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들학교에 나가서도 제가 조금이라도 성군이 있다면 모든 분들께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는 보탬을 할게요.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하세요!! 서로서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에' 당당하게 웃으면서 살아갈수 있다고 마음을 세겨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멘

우리들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일파리와 정싹봉사와 우리들학교를 한 줄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우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짧은 미소로 환영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표정들을 때마 다 늘 기뻐합니다. 저희는 작게나마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식사한 번 준비하고 있어서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용도 마음 도 건강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학교에서 꿈을 잘 키워서 한국에서 멋진 사람되길 잘 게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주님의 교회 정싹봉사활동

~매년 여백 주님의 교회 한달에 한번 두 번씩 성일파리 영락은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함께 감사 편지말까 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밥맛도 음식을 권애에 권애는 정말 감사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올길 위아쪽에서는 성일을 축하해주고 사랑이 많은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강연 12월이 주님의 교회에서 저의 성원을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교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저는 힘이 됩니다. 우리로 주님의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할게요.

목회칼럼

청소년, 밭에 감추인 보화

청소년 시절 수련회를 가면 장롱 속에 숨어 집회가 끝나길 기다리던 학생이 이제는 수련회 때 아이들을 찾으러 장롱 문을 열어보고 다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랑과 관심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장롱 속에 숨기를 성공하여 집회에 빠지게 되면 선생님들을 따돌렸다는 성취감보다 섭섭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는 장롱 속에 숨기를 성공한 수련회가 아니라 전도사님께서 진행되던 집회도 잠시 중단하고 장롱 속에 있는 나를 찾아와준 수련회입니다. 50여 명의 사람이 나 한 사람을 찾아주고 기다려준다는 것은 공동체의 사랑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나섰던 그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경험이 그날 집회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특징 중 한 가지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장롱 속에 숨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기 싫은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찾는 행동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은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이해받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학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으로 학업성취도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님께서 자신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부모님들의 사회도 역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그 마음이 지쳐있어 충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에 대한 필요는 크지만 안타깝게도 도리어 부모님과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가 되어 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누구의 잘못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만큼 사랑이 필요한 시기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 성취해야 할 과업, 이루어야 할 꿈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적이나 성격이나 가정형편이나 교회 출석률이나 예배 태도를 넘어서서 그들은 그 자체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들의 까칠한 겉모습 속에는 여리고 어린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강렬하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껏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종으로써 억지로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써 기쁘게 순종함으



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의 증인이 될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아이들이 일으킬 폭발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들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드러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값진 것들이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가능성을 사랑으로 열심히 들춰내어 사랑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보화가 되도록 함께 사랑해주세요. **왕상현 목사**

젊은이공동체 소식

8교구 젊은이공동체 봄별 맞이 야유회



지난 4월29일 어린이주일 오후, 주님의교회 8교구 젊은이공동체는 교회 옆 아시아공원 잔디밭에 모여서 일일 봄별 맞이 야유회모임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 아래 웅기종기 모여앉아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에는 조원호 장로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고 신혼부부들 커플들이 나와서 특송을 불렀습니다. 이후에는 스피드게임, 보물찾기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하며 모두 함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8교구 젊은이공동체는 2~30대 부부와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주중에는 직장생활과 육아로 모이기 어려워서 매 주일에 겨자씨 모임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젊은이분과위원회 섬김이로써 겨자씨 멘토리더들과 중보기도지원부, 자녀돌보미 등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평소 모이는 작은 겨자씨를 넘어서 공동체 내 다른 형제자매들과도 교제하고 나누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일 유아세례

를 받은 아기를 안고 온 가정들도 있었고, 얼마 전 출산한 갓난아기 첫나들이를 위해서 나온 가정도 있었습니다. ‘함께’, WITH로써 함께 교제하는 기쁨과 함께 자라감의 소망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준 목사**

아기나들이



이아인 아기

2018년 2월 17일생

1. 아기 아인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2. 아기 아인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3. 우리 가족 모두 나날이 깊어지는 신앙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아빠 이재승 / 엄마 김주형, 2018년 4월 29일 4부 예배



김예진 아기

2018년 1월 15일생

1. 믿음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2.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딸이 되게 해 주세요.
3. 주님은혜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빠 김병일 / 엄마 강인혜, 2018년 5월 6일 3부 예배

공동체 소식

늘푸른대학 봄나들이



5월 15일 (화) 늘푸른대학에서는 광릉 국립수목원에 춘계나들이를 다녀왔다. 학생과 스텝 모두 210명이 참여하여 버스 5대로 이동했다. 각 특별활동반별로 버스에 탑승을 하여 마치 초등학교 때에 소풍을 가듯이 즐겁게 안전하게 다녀왔다. 때 이른 더운 날씨에 지나가는 봄속에서 연두빛들이 진초록으로 물들은 나무들을 바라보며 더 진한 초록의 싱싱함을 느꼈다. 10년째 맞는 늘푸른대학, 이제는 초기 입학생 어르신들의 모습들이 어느덧 80이 넘으신 연세에 나들이를 마치고 오는 버스에서 오랫동안 늘푸른대학에서 함께 점심을 나누며 여러 반별 활동도 하며 건강하게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들 함께 나누는 귀한 나들이였다.

함줄함울

남선교회 춘계 연합 수련회



4월 28일(토) 남선교회 연합수련회가 남한산성 한경직 목사 기념관에서 부부동반으로 진행되었다. 맑은 날씨 속에 산행과 더불어 남선교회 담당 허준목사의 말씀으로 산상예배를 드렸다. 노대홍 안수집사가 해주는 남한산성에 대한 여러 역사 강의를 듣고 여선교회에서 만들어 준 점심 식사로 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함줄함울

성지순례

안수집사회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5월 12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토요일 아침. 안수집사회에서는 서산 해미읍성과 해미순교성지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바다 안개 속에 고즈넉이 떠있는 서해대교를 넘어 해미읍성에 도착했다.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태종과 세종시대에 걸쳐 세운 계획도시(?)로 서해의 왜구를 방어하고 내포지역을 관할하는 현감이 다스리던 군사, 행정의 중심지였다.

병인양요(1866년)이후 많은 천주교인들의 순교역사가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모진 고난과 배교의 회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순교한 교인들의 흔적들 속에서, 평탄한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미를 떠나올 때까지 세차게 불던 비바람은 우리들을 더욱 정결케 하기 바라는 단비가 아니었을까? 생각에 잠긴 귀한 하루였다.

강대수 안수집사

알립니다

1. 해외 비전트립 물품 후원

기간 : 5/20~6/10 매 주일 오전 8:30~오후 2:00

물품 : 선교지 요청물품 및 선교지청소년초청수련회 후원

문의 : 이재홍 안수집사(010.7738.4455)

* 제품 일괄 구매 및 세관 통관상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현금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 SC제일은행 204-20-112255 주님의교회

2. 제5회 통일선교학교

일정 : 5/17~6/7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 초등부실(3층)

문의 : 신성철 안수집사(010.2777.2349)

3. 창립 30주년 기념 음악예배에 참여할 교우 모집

일시 : 6/20(수) 오후 7:20

문의 : 찬양대(배태민 집사 010.6338.3434)

주오케스트라(안정수 안수집사 010.5445.5004)

4. 제18기 결혼예비학교

대상 : 결혼을 앞둔 커플&결혼한 신혼부부

일정 : 5/20, 27, 6/3 매주일 오후 4:00~8:00

회비 : 커플당 8만원 / 신청 : 교역자실(4층)

문의 : 허 준 목사(010.5450.5308)

5. 무지개잔치 사진 전시

일시 : 5/20(주일)~27(주일) 1층 게시판 * 본인이 나온 사진 가져가시면 됩니다.

6. 영어 캠프 보조 선생님 (고3부터) 모집합니다.

일시 : 7/30(월) - 8/3(금), 8/6(월) - 8/10(금)

시간 : 오전 9:00~오후 5:00 (오전 9:00 ~ 오후 1:00 또는 오후 1:00~오후 5:00 가능)

문의 : 김경배 전도사 (010-2782-2585)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